

사이버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實態 調査

A Survey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yber Trade of Korean Traders

심상비(Sim, Sang-Bee)*

調査概要

- 조사배경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무역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업계의 사이버무역 이용실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정책 입안 및 업계의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 사이버무역 이용 실태, 성과 및 애로사항,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등
- 조사기간 : 2000년 4월 20~ 5. 19일
- 조사방법 : 업체 방문조사(Interview)
- 대상업체 : 33개 업종 800개 업체로부터 설문서 회수
- ◆ 담당자 : 심상비(기획조사과, 5184)

<목 차>	
<요약>	3. 사이버무역 인력 현황 및 수요
1. 사이버무역 이용 현황	4.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지원
2. 사이버무역의 성과 및 애로사항	

<요약>

-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 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51.8%) 업체들이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퍼 및 거래협상 등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이용업체의 절반이상 (57.3%)은 작년(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버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비중도 10% 미만(1999년: 8.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

*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나, 2000년에는 사이버무역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개척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의 절약」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러 수출단계 중에서도 「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 제품의 해외 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위하여 약 40%의 무역업체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사이버무역 활동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단계로는 「대금결제, 물류·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무역업계는 사이버무역의 필요성과 활용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서 사이버 무역 전문인력이나 인터넷 통신환경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인력 부문에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직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무역업체가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소기업(4.7명)이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도 전체적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으로 나타나, 정부나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설문내용		비중(%)
○ 사이버무역 이용 현황	사이버무역 이용업체 비중	51.8
	수출중 사이버무역 비중(2000년)	18.7
○ 사이버무역의 효과가 큰 수출단계	해외거래선 발굴	29.5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26.1
	자사제품의 해외홍보/마케팅	24.6
○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수요	무역인력 10명 채용시 전문인력 채용 인원수	4.5명

1. 사이버무역 이용 현황

◎ 사이버무역 이용 유무

- 조사대상업체중 인터넷(EDI 포함)을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피 및 거래협상 등 각종 무역업무에 이용하는 비율이 51.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51.6%)도 사이버무역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대기업(53.3%)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구조별로는 중화학공업(57.1%)이 경공업(44.7%)이나 농수산물(46.7%)에 비해 사이버무역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이버무역 이용 경험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있음	51.8	46.7	44.7	57.1	53.3	51.6
없음	48.2	53.3	55.3	42.9	46.7	4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이버무역 최초 이용 시기

- 사이버무역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는 98년(31.9%)과 99년(46.9%)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8%를 차지
 - 이는 98-99년 동안 인터넷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업계의 사이버무역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중 거의 절반 정도(48.7%)가 99년에 들어서야 사이버무역을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이버무역 최초 시도시기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1990-95년	2.2	7.1	2.8	1.6	10.0	1.3
1996-97년	8.6	0	7.7	9.7	10.0	8.6
1998년	31.9	21.4	30.1	33.5	35.0	31.6
1999년	46.9	57.1	47.6	45.9	30.0	48.7
2000년	10.4	14.3	11.9	9.3	15.0	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사이버무역 채택 계획

- 현재 사이버무역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중 금년(18.9%) 또는 내년(18.7%) 중으로 사이버무역을 시도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37.6%에 달함
- 따라서, 2001년까지 사이버무역 이용 업체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未이용 업체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소기업(44.7%)이 대기업(34.3%)보다 훨씬 높았으며, 농수산물 업체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3%가 시도계획이 없다고 응답

향후 사이버무역 채택 계획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금년중	18.9	0	13.6	25.4	22.9	18.5
내년중	18.7	31.3	17.5	18.7	22.9	18.2
2002년 이후	18.7	12.5	23.2	15.0	20.0	18.5
계획 없음	43.8	56.3	45.8	40.9	34.3	44.7

◎ 사이버무역이 업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99년도에 사이버무역이 업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 아직은 사이버무역을 이용한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금년도(2000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이버무역 비중은 크게 늘어날 전망

- 특히, 대기업(16.4%)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18.9%)에서 사이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사이버무역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1999년도	없다(무응답 포함)	43.2	42.9	56.0	36.2	50.0	42.5	
	10% 미만	38.8	28.5	26.6	46.3	32.5	39.6	
	10%-50%	14.5	28.5	14.7	13.6	15.0	14.5	
	50% 이상	3.4	0	2.8	3.9	2.5	3.5	
	평균	8.8	2.9	7.8	9.3	8.0	9.0	
2000년도 (전망)	없다(무응답 포함)	20.3	28.6	25.2	17.1	30.0	19.3	
	10% 미만	30.9	21.4	23.8	35.4	27.5	31.2	
	10%-50%	43.3	50.0	44.1	42.4	37.5	43.9	
	50% 이상	5.6	0	7.0	5.1	5.0	5.6	
	평균	18.7	19.3	19.7	18.3	16.4	18.9	

◎ 사이버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속방식

— 사이버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속방식으로 전용선 이용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2.5%에 그치고 있어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80%)에 비해 중소기업의 전용선 이용은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38.5%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인터넷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속방식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전화선	19.6	0	28.0	16.0	5.0	21.1
전용선	42.5	50.0	39.9	43.6	80.0	38.5
ISDN	17.6	7.1	24.5	14.4	10.0	18.4
CATV	1.2	7.1	0	1.6	0	1.3
ADSL	18.6	28.6	7.7	24.1	5.0	20.1
기타	0.5	7.1	0	0.4	0	0.5

2. 사이버무역의 성과 및 애로사항

◎ 사이버무역 추진의 최대 이점

- 사이버무역의 최대 이점으로는 해외시장개척 효과(2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시간적·공간적 장벽의 극복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
 - 이외에도 수출업무 신속화 및 인건비 절감(23.5%)이라는 응답도 많았는데, 이는 E-Mail이나 EDI 등을 통한 수출절차의 신속, 간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신속한 클레임 처리(2.7%), 물류비용의 절감(6.0%) 등은 응답이 극히 적어, 앞으로 사이버무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 줌

사이버무역 추진의 최대 이점

	전 체	구 조 별			규 모 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효과	27.7	29.8	27.9	27.4	27.1	27.7	
해외 광고비 절약	16.2	17.5	14.7	17.1	13.3	16.6	
거래체결비용 절감	11.6	5.3	11.1	12.2	13.3	11.4	
신속한 클레임 처리	2.7	0	2.1	3.3	1.1	2.9	
회사 이미지 제고	11.4	15.8	12.0	10.7	15.5	10.9	
물류비용의 절감	6.0	7.0	6.9	5.3	6.6	5.9	
수출업무 신속화 및 인건비의 절감	23.5	22.8	23.5	23.5	23.2	23.5	
없다	1.0	1.8	1.8	0.5	0	1.1	

◎ 사이버무역 활용성과가 큰 수출단계

- 조사대상업체들은 해외거래선 발굴(29.5%)을 비롯하여 해외시장정보의 수집(26.1%), 자사 제품 해외홍보(24.6%) 등 주로 마케팅 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의 활용성과가 크다고 보았음
- 한편, 대금결제, 물류·운송 등의 단계에서는 대기업(20.0%)에 비해, 중소기업(7.0%)의 경우 활용성과가 작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EDI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무역 활용성과가 큰 수출단계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새로운 해외시장정보 수집	26.1	14.3	19.6	30.4	20.0	26.7
자사제품의 해외홍보/마케팅	24.6	7.1	27.3	24.1	17.5	25.4
해외거래선 발굴	29.5	35.7	28.0	30.0	25.0	29.9
신용조회	1.9	0	2.1	1.9	5.0	1.6
오퍼 및 거래협상	5.6	0	4.9	6.2	5.0	5.6
거래계약 체결	0.2	0	0	0.4	0	0.3
대금결제, 물류·운송 등	8.2	21.4	14.0	4.3	20.0	7.0
없다	3.9	21.4	4.2	2.7	7.5	3.5

◎ 사이버무역 활용시 애로가 큰 수출단계

— 조사대상업체들은 대금결제, 물류·운송(29.5%), 신용조회(20.3%), 거래계약 체결(12.1%) 단계 등에서 주로 사이버무역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들 단계에서는 아직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인터넷 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이버무역 활용시 애로가 큰 수출단계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새로운 해외시장정보 수집	11.8	0	9.8	13.6	10.0	12.0
자사제품의 해외홍보/마케팅	3.6	0	2.1	4.7	0	4.0
해외거래선 발굴	7.2	14.3	2.8	9.3	7.5	7.2
신용조회	20.3	35.7	16.1	21.8	20.0	20.3
오퍼 및 거래협상	6.8	7.1	5.6	7.4	2.5	7.2
거래계약 체결	12.1	7.1	14.7	10.9	22.5	11.0
대금결제, 물류·운송 등	29.5	28.6	36.4	25.7	25.0	29.9
없다	8.7	7.1	12.6	6.6	12.5	8.3

◎ 사이버무역에 효과적인 인터넷 서비스

— 조사대상업체들은 사이버무역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 전자우편(E-Mail, 32.1%), Web을 통한 정보검색(22.7%), 전문 무역정보 D/B(15.7%)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음

사이버무역에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서비스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Web을 통한 정보검색	22.7	14.3	18.2	25.7	27.5	22.2	
홈페이지 구축	15.5	28.6	17.5	13.6	12.5	15.8	
전자우편(E-Mail)	32.1	21.4	35.0	31.1	30.0	32.4	
무역거래알선 사이트	12.3	21.4	16.8	9.3	15.0	12.0	
인트라넷(Intranet)	0.2	0	0.7	0	2.5	0	
전문무역정보 D/B	15.7	14.3	9.8	19.1	10.0	16.3	
없다	1.4	0	2.1	1.2	2.5	1.3	

◎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의 이용비율 및 활용빈도

— 조사대상업체중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의 이용비율은 42.1%이며 중소기업(42.8%)이 대기업(35.8%)보다 이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OFF-LINE상의 해외 영업망, 지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큰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의 이용 유무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이용	42.1	44.0	42.0	42.1	35.8	42.8	
불이용	57.9	56.0	58.0	57.9	64.2	57.2	

3. 사이버무역 인력 현황 및 수요

◎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

—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업체가 전체의 46.6%에 그침으로써, 아직 사이버무역을 위한 인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55.0%)에 비해 중소기업(45.7%)의 인터넷활용 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25% 이하	25.6	35.7	25.9	24.9	27.5	25.4
26% - 50%	26.1	21.4	25.2	26.8	15.0	27.3
51% - 75%	11.1	7.1	7.7	13.2	7.5	11.5
76% - 100%	35.5	35.7	38.5	33.9	47.5	34.2
무응답	1.7	0	2.8	1.2	2.5	1.6

◎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업계 수요

— 조사대상업체들은 향후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명 당 평균 4.7명으로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향후 채용코자 하는 무역인력중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의 비중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채용코자 하는 무역인력 10명중						
1 - 2명	23.2	35.3	26.7	20.3	36.2	21.3
3 - 4명	28.0	23.5	25.6	29.7	25.9	28.3
5 - 6명	24.0	23.5	25.0	23.4	17.2	24.9
7 - 8명	11.4	11.8	7.6	13.6	6.9	12.0
9 - 10명	10.7	0	13.4	9.8	5.2	11.5
무응답	2.7	5.9	1.7	3.1	8.6	1.9
평균	4.5	3.5	4.5	4.6	3.4	4.7

4.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지원

◎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및 정책지원

— 조사대상업체들은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36.2%)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18.3%)」이라고 응답,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전체	구조별			규모별		(%)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체계적 교육 및 전문인력 확충	36.2	26.2	37.1	36.3	41.3	35.5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	18.3	14.3	15.3	20.5	16.7	18.5
홈페이지 제작 지원	5.3	7.2	7.8	3.9	2.2	5.7
인터넷 통신비용 경감	7.4	11.9	5.3	8.8	7.5	7.4
인터넷 접속속도 개선 등	7.2	9.5	8.2	6.5	5.6	7.4
종합적인 무역관련 정보 제공	3.5	0	4.7	2.7	6.5	3.1
기업간 거래(B2B) 사이트의 조성	4.2	7.2	2.6	5.3	4.4	4.1
官學 간밀한 협력체제의 구축	0.7	0	0.5	0.9	0	0.8
인터넷관련 투자자금 및 세제 지원	8.6	4.8	9.3	8.6	5.6	9.1
래알선 사이트의 내용확충	1.9	0	2.6	1.3	0	2.5
최고경영자의 인식 제고	3.7	8.5	3.2	3.7	8.7	3.1
없다	3.1	9.6	4.6	1.6	1.6	3.2

— 이밖에,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인식 제고(8.7%)와 인터넷 통신비용 경감(7.5%)을,

- 중소기업의 경우 인터넷관련 투자자금 및 세제지원(9.1%)과 인터넷 접속 속도의 개선(7.4%)을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음